



구름이 머무는 평원, 웃음이 퍼지는 계곡

전북 무주 덕유산과 구천동 계곡

풀밭을 헤집고 기어가는 길은 푸른 자연의 생기를 먹고 자란 뱀처럼 제법 그럴싸하게 구불거리며 숲을 헤치고 지나간다. 서쪽으로 향한 길은 호수를 에돌아 숲으로 들어가더니 모습을 감추었다. 무주 덕유산에서는 이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구름 위에서의 산책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000m 평원에 펼쳐진 식탁에서 여름 별미인 도토리묵을 맛보는 즐거움까지 만끽할 수 있다. 그리고 덕유산이 품은 구천동 푸른 계곡에 온 몸을 담그면 아이들 웃음소리가 계곡 가득 울려 퍼진다.

✎ 사진: 정태동(여행 칼럼니스트)

덕유산 전망대휴게소에서 내려다 본 풍경





전망대 휴게소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막걸리 안주로 먹은 도토리묵. 맛이 좋아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젓가락을 들이밀고 있다.

녹색 평원에 부는 바람

지리산 줄기가 보이는 덕유산 전망대 휴게소에 섰다.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머리채를 뒤흔든다. 1,000m가 넘는 곳에 펼쳐진 녹색평원은 그 자체로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평원의 가장자리를 지키고 있는 구상나무 고사목들은 녹색평원의 수호자처럼 보였다. 마음에 새기듯 그 땅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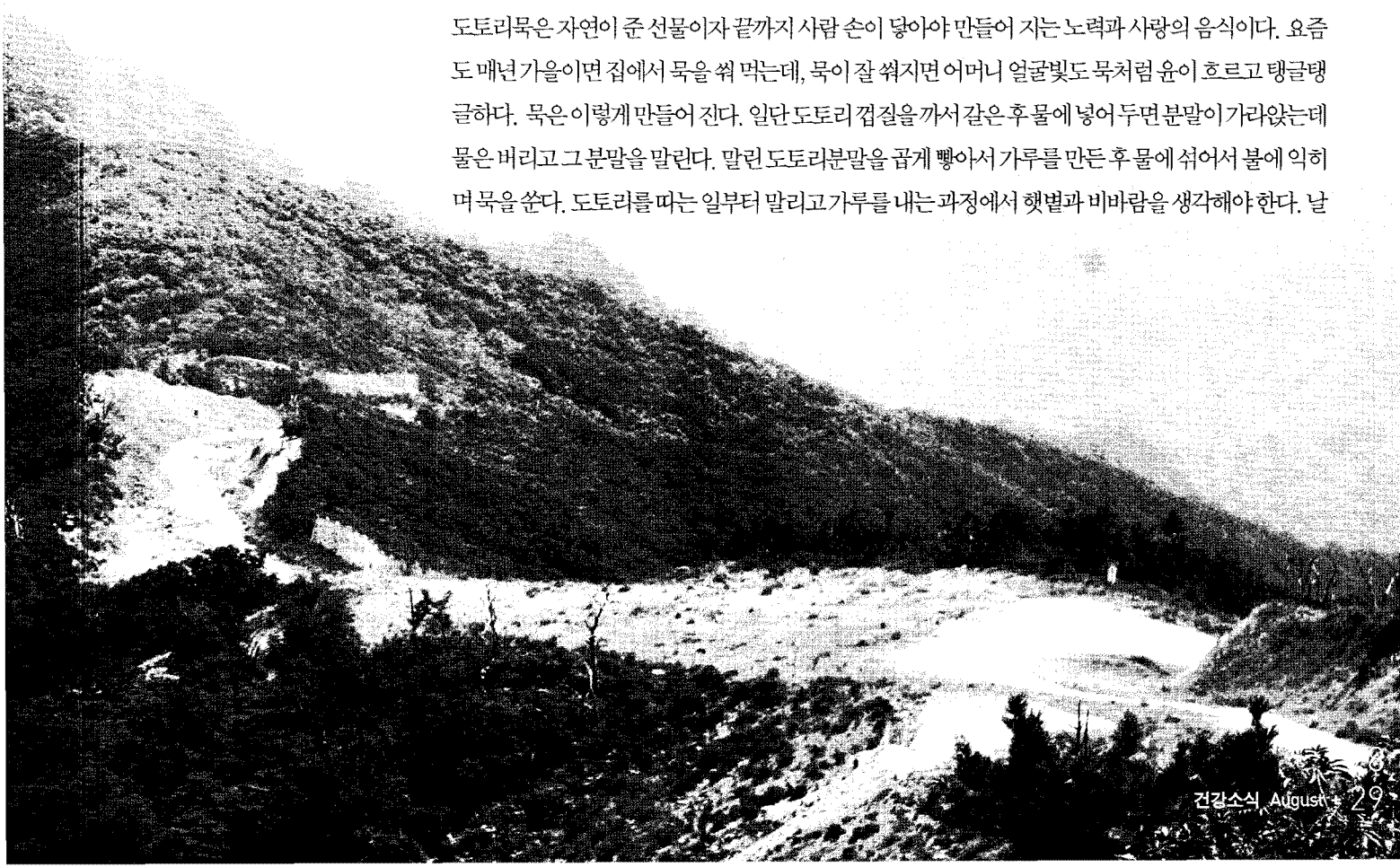
몸에 땀이 나고서야 서늘한 공기가 목덜미를 훑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 바람은 지리산 피앗골의 새벽공기를 닮았다. 푸른 산이 굽이치는 풍경 앞에서 그렇게 넋을 놓고 앉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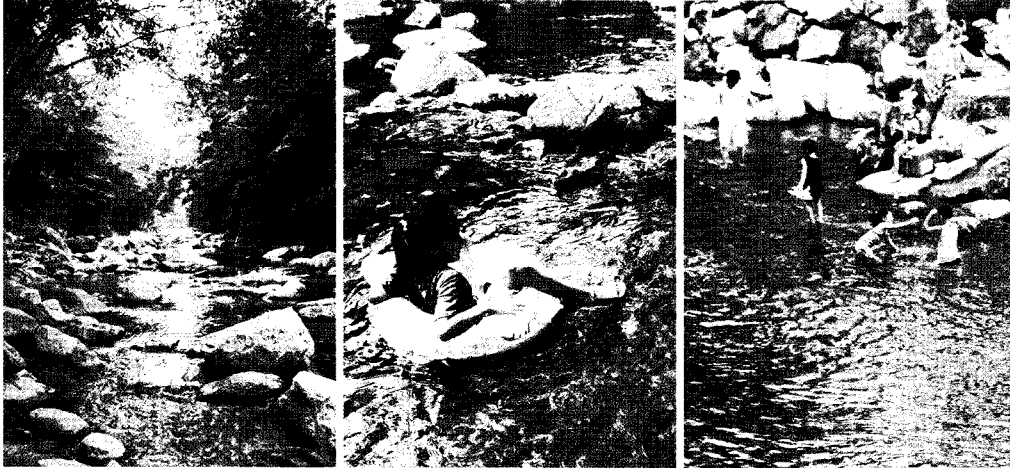
산 저아래서 연기 같은 것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더니 이내 시야를 가린다. 산골짜기를 타고 올라오는 구름이었다. 파랑던 하늘을 순식간에 덮는다. 녹색평원도 구상나무 고사목도 다 구름에 파묻혀 보이지 않는다. 바로 앞도 분간할 수 없었다. 피앗골의 어둠이 나를 감싸안아주던 것처럼 덕유산 구름이 내 불을 어루만지고 있다. 구름은 지상으로 내려가는 모든 길을 삼켜버렸고, 나의 몸은 작은 물 알갱이가 되어 구름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다.

지상 1,000m에서 맛보는 도토리묵

향적봉에 올랐던 일행이 돌아오는 길에도토리묵과 막걸리를 사들고 왔다. 구름의 골짜기가 잘 보이는 곳에 앉아 잔을 나누었다. 이곳에서는 뭐든지 처음 같은 기분이 든다. 막걸리도 처음 먹던 맛 같았고, 도토리묵도 마찬가지였다.

도토리묵을 생각하면 엄마 생각이 난다. 엄마가 해 준 도토리묵이 내 첫 도토리묵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만드는데 들이는 정성을 알기 때문이다. 손가는 대로 정성이 담기는 음식 중 하나가 도토리묵이다. 도토리묵은 자연이 준 선물이자 끝까지 사람 손이 닿아야 만들어 지는 노력과 사랑의 음식이다. 요즘도 매년 가을이면 집에서 묵을 썬는데, 묵이 잘 썬지면 어머니 얼굴빛도 묵처럼 윤이 흐르고 탱글탱글하다. 묵은 이렇게 만들어 진다. 일단 도토리껍질을 까서 같은 후물에 넣어 두면 분말이 가라앉는데 물은 버리고 그분말을 말린다. 말린 도토리분말을 곱게 빻아서 가루를 만든 후 물에 섞어서 불에 익히며 묵을 썬다. 도토리를 띠는 일부터 말리고 가루를 내는 과정에서 햇볕과 비바람을 생각해야 한다. 날





- ① 구천동계곡과 맑은 물
- ② 구천동계곡에서 노는 아이. 물이 찬데도 아이들은 물에서 나오지 않는다.
- ③ 구천동계곡 초입 아이들이 놀기에는 계곡 초입이 좋다.

씨눈치바가며 만들어진 도토리가루를 물에 풀어 목을 쑤기 시작하는데, 불 위에 오른 목을 잘 저어야 한다. 그래야 공기방울이 생기거나 누르지 않아 맛이 좋은 차진 목이 된다. 불의 세기를 잘 조절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쑤 목을 식힐 때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목판(다쑤 목을 담아 놓는 용기. 집에 있는 사발이나 턱이 있고 넓은 용기도 괜찮다)에 목을 담고 자연적으로 식히는 것이다. 목이 식으면서 굳으면 크기에 맞게 썰어 먹으면 된다.

엄마가 해준 그 맛을 기억하며 맛보는 무주구천동 도토리목도 맛있었다. 야채와 함께 양념장을 넣어 버무린 그 맛을 통해 엄마의 손맛을 추억할 수 있었다.

아이들 세상, 구천동계곡

그렇게 산 위의 한 때를 보낸 뒤 덕유산의 핏줄인 무주구천동 계곡으로 자리를 옮겼다. 900m 덕유산 어느 골짜기에서 발원한 구천동 계곡은 30km 가까운 물길을 만들고 흐른다. 구천동 계곡은 그물길 곳곳에 크고 작은 폭포를 빚었고, 단애를 세우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못을 파놓았다. 사람들은 그런 곳에 이름을 하나씩 붙였고, 그렇게 모인 이름이라 제통문부터 덕유산향적봉까지 33개나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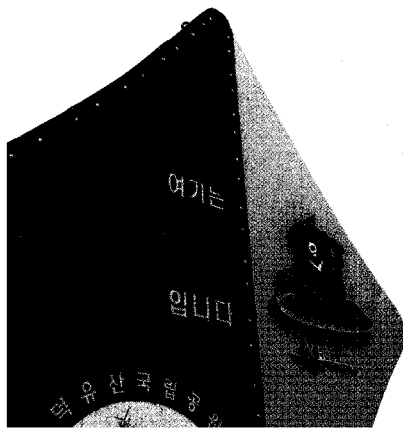
산의 품에서 흐르는 계곡은 산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을 품었다. 계곡은 주차장이 있는 초입부터 장사치와 식당, 여행객들로 붐볐지만 어수선하지 않았다. 물길을 거슬러 계곡 상류로 올라가다가 한적한 곳에 자리를 잡았다. 아이들은 물에서 나올 줄 몰랐고, 나 또한 그랬다. 나는 아이가 된 기분으로 '뿔뿔' 거리며 계곡을 뛰어다녔다. 아이들도 나를 따라 물길 아래 위를 오가며 놀고 있었다.

계곡은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다. 흙과 돌과 물이 있고, 이끼와 나무, 그리고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는 물론 벌레와 곤충까지 모든 것이 살아서 꿈틀대는 자연 그 자체다.

물을 건널 때 무섭다며 엉덩이를 빼던 아이가 십분도 안 돼 물과 바위와 흙과 잡자리와 곤충들과 장난친다. 계곡물의 흐름을 알고 물살을 탄다. 계곡에서 노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한 것이다. 물속 돌 멍이에 걸려 넘어지고 계곡물을 먹기도 했지만 얼굴에는 웃음뿐이다. 푸른 웃음이 녹음을 물들이고, 맑은 눈망울은 계곡물을 더욱 더 투명하게 만든다. 기뻐 어쩔 줄 모르는 아이들은 계곡 전체를 뒤덮고도 남을 만큼 웃고 있다.

덕유산국립공원

전북 무주군과 장수군, 경남 거창군과 함양군 등지에 걸쳐 있다. 북덕유에서 남덕유까지 20km 정도의 능선이 있다. 구천동계곡을 품고 있으며 계곡의 아름다움과 함께 정상부의 주목군락과 각종 야생화 등 고산식물도 볼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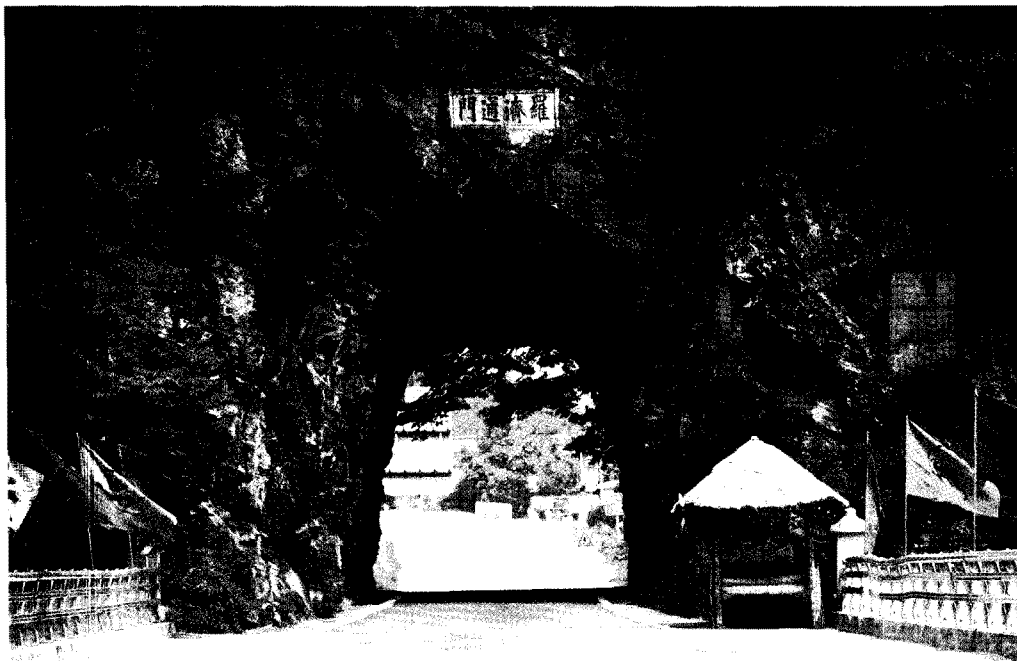
무주 33경의 시작 '라제통문'

우리는 계곡을 따라 하류로 향했다. 물길은 차가 지나는 길에서 보였다가 사라지고, 다시 나타났다가는 없어졌다. 무심코 바라보는 창밖 풍경이 예사롭지 않은 여울목도 있었으며, 너럭바위와 단애가 이어진 곳에는 출입금지를 알리는 줄과 함께 팻말이 걸려 있었다. 그렇게 33개의 경치를 33번째부터 거슬러 갔다. 그 끝에 덕유산과 무주구천동계곡이 만들어낸 제1경, '라제통문'이 있었다.

아주 오래 전 신라와 백제가 있었을 때 '라제통문'은 두 나라의 접경이었다. 지금 같은 석굴문이 그 당시에도 있었는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그 석굴문이 있는 곳이 접경지역임은 틀림없다. 그 후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도 석굴문이 있는 자리가 행정구역이나 닦는 곳이었다. 이는 현대에도 이어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라제통문이 경상도와 전라도의 경계였다. 문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0초도 안 되지만, 석굴문을 경계로 전라도와 경상도의 사투리가 나뉘고, 생활풍습이 달라진다.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구천동으로 들어갈 수 없다. 또 들어간 사람이 나올 수도 없다. 경계가 되고 있는 돌산은 자연이 만들어 놓은 장애물이지만, 사람들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소통할 수 있는 지혜를 짜내 석굴문을 만든 것이다.

'라제통문', 모나고 꺾이고 불거진 단애 아래로는 푸른 물이 힘차게 굽이치고 있으며, 위로는 푸른 정기가득한 소나무가 뿌리내려 자라고 있다. 물과 바위와 나무가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 내는 주변 경치가 예사롭지 않으니, 그것이 있음으로써 소통할 수 있고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다. '라제통문'의 이 숨은 뜻을 보려면 다리 옆에 있는 정자에 올라볼 것. ㉞



가는길

◎자카용 경부고속도로 → 회덕 분기점(부산방향) → 대전터널 → 무주, 진주방향 → 대전고속도로 → 무주IC 통과 후 좌회전 → 적상면삼거리에서 좌회전 → 사산삼거리 좌회전 → 치목터널 → 구천동터널 → 무주리조트

※ 구천동계곡은 무주리조트에서 나가는 길에서 우회전해서 기다보면 구천동계곡 이정표가 있음

※ 라제통문은 무주리조트에서 나가는 길에서 좌회전해서 기다기가 설천, 용화 쪽 37번 국도로 가면 나옴

◎대중교통 서울 남부터미널, 대전 동부터미널, 전주 시외버스터미널, 광주 버스터미널, 대구 북부터미널에서 무주버스터미널로 가는 버스를 탈 수 있다. 무주읍내에서 리조트까지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셔틀버스의 063-320-7196, 7113

볼거리 & 놀거리



◎무주구천동계곡- 학소대, 추월담, 수심대, 수경대, 인월담, 청류동, 구월담, 금포탄, 청류계, 구천폭포 등 수려한 경관을 지닌 곳이 즐비하다. 무주리조트에서 나오다가 우회전해서 가는 무주구천동계곡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무주리조트- 덕유산 국립공원 내에 무주리조트가 있다. 산상 음악회, 생맥주와 함께 하는 라이브공연, 마술쇼 등 한 여름밤의 축제를 즐길 수 있다. 작은 놀이동산도 있다. 곤돌라를 타고 전망대휴게소에 올라간 뒤 20분 정도 걸어서 올라가면 향적봉이 나오는데, 가족이나 연인들의 여행코스도 딱 좋다.